



“섬에 오거든 돌멩이 한 개도 무심히 밟지 말라”

제주작가회의 4·3시화전
제주대 국문과 학생 포함
도내외 시인 63편 소개
이달 11일부터 평화공원

소설가 임철우는 제주4·3을 다룬 소설 '돌담에 속삭이는'에 이런 문장을 썼다. '그 섬엔 별보다도 많은 어린 아이들의 슬픈 혼이 돌담 틈에 숨어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섬에 가거든, 부디 돌멩이 한 개도 무심히 밟고 지

나지 말라. 합부로 돌담 사이 어둠을 엿보거나, 돌멩이 한 개라도 무심코 뺨내어 허물지 말라.' 힘없고 가엾은 이들과 역사의 광풍에 무참히 쓰러진 4·3의 비극이 잊혀져선 안된다 는 메시지가 담겼다.

연분홍 벚꽃 피는 계절이 돌아오면 매년 4월을 시로 불러내 4·3의 낮을 달래온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 지회(제주작가회의, 회장 강덕환), 이들이 다시 4월을 노래한 시들로 추념 시화전을 연다. 이번이 18회째다. 4·3 72주년에 맞춘 시화전은 임철

우의 소설 표제에서 따온 '돌담에 속삭이는'이란 이름이 달렸다. 지난해 처음 제주대 국어국문과 학생들이 청년의 눈으로 4·3을 노래한 시들을 펼쳐냈는데 올해도 그들의 작품을 포함해 도내외 시인들이 참여한 63편을 풀어낸다. 4·3의 고통스런 역사의 기억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 화해, 상생 등을 표현한 시화 작품을 볼 수 있다. 소설 '돌담에 속삭이는' 에필로그 부분도 전시된다. 전시는 4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문주

(공원 정문)에서 이루어진다. 당초 이달 2일부터 별도 개막식 없이 치르려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어서 일정을 늦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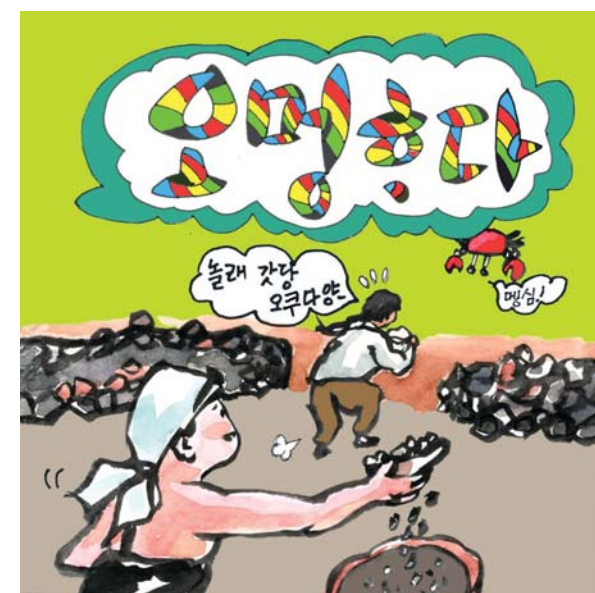
제주작가회의는 1998년 창립 이래 주요사업으로 4·3문학제를 열며 4·3을 문학적 심파로 축적하기 위한 창작에 몰두해왔다. 특히 매년 4·3 행사에 맞춰 4·3 희생자 위령제 현장이나 4·3평화공원에서 4·3시화전을 진행했다. 문의 070-8844-2525.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말한판

<197>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준네 골았저 “하르바지- 방풍 데우칠 때 물에 소곰 얼매나 낚사 흘네까?” 하르바지 골멘, “어- 혼 줌은 낚사흘거여.”
준네 골았저, “오맹이아- 소곰 학살 7정오라. 고팡이 강 보민 꺼멍혼 두깡이 튀어진 향이 있저. 그디서 사발로 7득하게 담양오라.”
오맹이 골멘, “이디 신 낭푼이에 하영 담양오우다. 소곰 7정왕 놀래갓당 오우다양. 먹보가 집이서 나 오몽하길 넘어 지들렀수다.”
준네 골았저 “경하라- 먹보네 갈 때 소곰 싸주켜. 앗강강 삼츄데 신디도 인스하곡 하라이. 허천바레지 말양 멍심하영 갓당오라.”

* 제주어 풀이

- * 고팡(팡, 꺾팡, 꺾팡, 노재기, 앗팡, 장팡): <이름> 곡식 따위를 저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창고.
- * 꺼멍혼: 검은. * 두깡이: 두덩이.
- * 튀어진: 덮어진. * 사발: <이름>사발. 그릇.
- * 7득하게 담양오라: 가득히 담아 오라.
- * 7정왕: <이름>음식을 담은 넓적하고 큰 그릇. 양푼.
- * 7정왕: 가지고 와서.
- * 놀래갓당 오우다양: 놀라갓다 올게요.
- * 오몽하다: <음적> 움직이다. 몸을 움직여 나다니거나 일을 하다. 활동하다.
- * 지들렀수다: 기다리고 있어요.
- * 허천바레지 말양: 한눈팔지 말고.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음적>음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대어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대소>대기롭소/<의문>의문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씨, 한국문화사, 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문동 4개 마을 어제와 오늘 한곳에

제주도문화원연합회
'... 역사문화지' 발간

중문·대포·하원·회수 등 4개 마을로 이루어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관광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가진 중문동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책자가 나왔

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최근 펴낸 '중문동역사문화지'다.

약 900쪽 분량으로 묶인 이번 책은 제주도의 '제주 동(洞) 역사문화지' 편찬사업의 하나로 출간됐다. 중문동에 속한 4개 마을에서 이미 향토지(마을지)가 발간되었던 만큼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현장 방문에서 얻은 조사자료를 추가해 제작했다.

역사문화지에는 중문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자연·지리, 역사·유적·유물, 설화와 지명 유래, 행정, 교육, 산업, 문화, 민속, 의생활과 육거리집, 관광·문화, 삶의 이야기 등 11장으로 구성됐다. 맨 앞장에는 중문색달해수욕장 개장식, 당굿, 관광공사 개발 반대 집회, 천제연 하구 벚꽃내 마을, 물

허벅을 이용한 식수 운반 장면 등 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문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부록으로 중문동 일반 현황을 수록했다.

제주도문화원연합회는 "중문동은 서귀포시 서부지역 생활권의 중심으로 제주도 관광개발의 시발지역"이라며 "향후 역사·문화적 자료는 영문 제작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매품. 연락처 064)752-0302. 전선희기자

여성·자연·타자에 대한 성찰과 연대

이중섭창작스튜디오 3인전
이달 4일부터 'F의 공존 2'

여성과 자연, 타자에 대한 성찰과 연대를 탐색한 전시가 있다.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F(Female, Forest, Failure)의 공존 2'전이다.

이번 전시엔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 기획전으로 선정됐던 'F의 공존' 김자이, 조성숙, 최송아 작가가 참여한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이들은 'F의 공존'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여성, 자연, 타자의 공존 가능성을 보다 깊이 살피려는 의도

로 이 전시를 기획했다.

조성숙은 개인과 사회의 중첩된 관점을 통해 인간의 타자로서 자연을 들여다보고 여성성에 대한 고민을 회화로 표현한다. '잃어버린 내일'은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작품이다. 환경학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모티브로 삼아 이를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재난을 겪고 있는 동시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으로 확장시켰다.

지난해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였던 김자이는 관람자의 참여를 통해 내면의 자연을 보듬고 몸매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을 실험했다. 김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 '휴식'을 주제로 진행했던 작업의 참여자가



조성숙의 '그녀의 이야기'.

떠온 씨앗 사진 등을 선보인다. 최송아는 기획자로서 사유의 흔적을 담은 텍스트를 내놓는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요구하는 관습적 태도나 사회

적 의무를 '자연'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자연화 전략' 등을 비판한다.

전시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문의 064)760-3573. 전선희기자

제주 대한민국독서대전 공식 표어 '지금 우리, 책'

독서의 달인 9월 4-6일 제주시 신산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0대한민국독서대전 공식 슬로건이 '지금 우리, 책'으로 확정됐다. 제주시 우당도서관(관장 김철용)은 대한민국독서대전 슬로건을 공모해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551건이 접수됐다. 그중 '지금 우리, 책'은 현 대회에서 독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책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2020 대한민국독서대전에서 만들어 간다는 취지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독서대전은 제주 자연의 돌담을 제주문화의 책담(談)으로 표현해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독서대전은 ▷우리, 책으로 보다(보담) ▷우리, 책으로 듣다(듣담) ▷우리, 책으로 생각하다(필담) ▷우리, 책으로 만나다(만담) ▷우리, 책으로 놀다(놀담) 등 5개 주제로 구성된다. 본 행사에 앞서 5월에는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제주' 선포식이 예정되어 있다. 전선희기자

WINIX

공기청정기

타워프라임



APRM833-JWK (26평)
~~599,000원~~
500,000원
구매고객에게 필터 1개 추가증정

타워X



ATGM500-JWK (15평)
~~329,000원~~
265,000원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WINIX novita (구.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마린나사거리 | 빽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